

고흥 유자·해남 고구마·담양 인문학 '우수 특구'

고흥 유자 연관상품 23개국 수출

해남 고구마 홍보체험 운영 농가소득 ↑

담양 인문학 가사문학 브랜드 높여

총리·장관 표창, 포상금도 받아

고흥 유자·석류특구, 해남 고구마산업특구, 담양 인문학교육특구, 고향 북분자산업특구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우수 특구'로 지정됐다.

25일 고흥군 등 해당 지자체에 따르면 우수특구 지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 190개 지역특화 발전특구의 운영성과와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평가해 12개의 특구를 선정했다.

고흥 웰빙유자·석류특구는 가공·유통 기반 육성, 생산기반 혁신화, 지역 관광자원 및 유자·석류 재배 농가와 연계한 관광·홍보 활성화 등 3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다.

고흥군은 이번 우수특구 지정으로 국무총리 기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억5000만원을 받게 됐다.

고흥지역의 유자재배 면적은 527ha에 달하며 연간 생산량은 6592t으로 전국 생산량의 58%를 차지한다.

석류는 87ha에서 87t을 생산해 전국 생산량의 78%를 차지할 정도로 고흥군의 대표 특산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고흥군은 유자 등 연관 상품을 해외 23개국에 수출하고 있다.

해남군의 땅끝해남 웰빙고구마 산업특구는 지난 2010년 지정됐으며,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관 표창과 함께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원받는다.

해남군은 그동안 고구마 생산 및 자원화, 고구마 가공 및 산업화, 고구마 연구 및 홍보체험 등 3개 특화사업과 8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고구마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했다.

해남군은 고구마 산업특구 운영을 통해 전체 생산면적에 무균 조식배양묘를 보급해 고품질 고구마 생산 기반을 마련했으며, 직영 온라인 쇼핑몰 해남미소의 운영과 고구마 가공업체 지원을 통한 신산업 확대 등 해남을 대표하는 농산물인 고구마 산업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아이스군고구마 등 고구마 신제품 개발과 가공산업을 역점 추진해 고구마 소비 저변을 확대해 고구마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담양 인문학교육특구는 인근 대도시로의 인구 유출에 대응하고 자급자족도시를 향한 노력으로 지난 2016년 3월 지정됐다. 4개 분야 17개 세부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담양군은 평생교육시설 498개소를 활용하여 309개의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청소년문화의집, 해동문화예술촌 조성, 미래형 대안공립고등학교인 송강고등학교 유치 등 인문학 인프라를 구축했다.

또 인문학과 연계한 예술, 생태, 문화재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해 인문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가사문학의 산실인 담양군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담양 인문학교육특구는 지난 5월 인문학과 연계한 생태정원도시 조성을 위해 담양 인문학교육·전통정원 특구로 변경 승인됐다.

기존 인문학교육에 남도정원 조성, 맞춤형 정원 교육, 정원 고부가 가치 산업화 등 2개 분야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주각중·박희석·노영찬 기자 gjiu@

'진객' 흑두루미 3마리 올해도 순천만 찾았다

순천시는 겨울철 반가운 손님 흑두루미 3마리가 지난해보다 1달 늦은 지난 23일 오후 순천만 갯벌에서 관찰됐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9월 순천만 희망농업단지에서 코로나19 극복 희망 메시지 '힘내라 대한민국'과 함께 모습을 드러낸 흑두루미가 한 달여 만에 진짜 모습으로 순천만에 내려앉았다.

흑두루미는 오랜 장거리 비행에 지친 듯 원형 갈대군락 옆 갯벌에서 깃털을 다듬으며 동물성 먹이로 체력을 보충하고 무리를 지어 하늘로 날아오르는 모습이 관찰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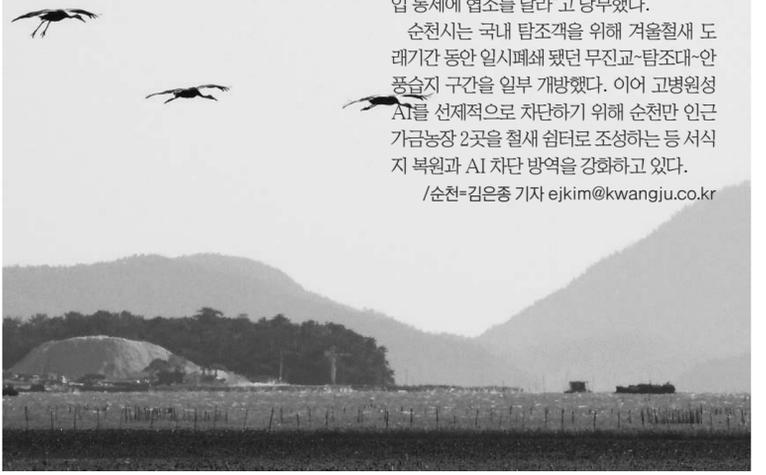
순천시는 흑두루미를 비롯한 겨울철 철새의 안정적인 서식환경을 마련해 주기 위해 차량 불빛 차단용 갈대 울타리 설치했다. 또 철새 습터 조성, 철새 먹이 주기 등 철새지킴이단 활동을 본격화했다.

흑두루미 희망농업단지에 경관농업으로 새겨진 '힘내라 대한민국'과 흑두루미 그림은 내년 2월 말까지 남겨 뒀다가 철새 먹이가 부족해지는 시기인 3월 초에 먹이로 제공할 예정이다.

순천시 순천만관리센터 관계자는 "순천만은 국내 200개 주요 습지 중 멸종위기종 조류가 가장 많이 관찰되는 세계적인 습지"라며 "철새 서식지 보호를 위해 탐조 에티켓을 준수하고 정해진 탐방 코스 외의 철새보호지구 출입 통제에 협조를 달라"고 당부했다.

순천시는 국내 탐조객을 위해 겨울철새 도래기간 동안 일시폐쇄 됐던 무진교-탐조대-안중습지 구간을 일부 개방했다. 이어 고병원성 AI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순천만 인근 가금농장 2곳을 철새 울타리로 조성하는 등 서식지 복원과 AI 차단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한전 영광지사·송이도발전소, 사랑의 봉사활동

해변 쓰레기 수거·사랑의 물품 전달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사는 지난 21일 사회봉사단과 송이도발전소(소장 박영삼) 임직원들이 영광군 낙월면 송이도에서 합동으로 '사랑의 봉사활동'을 벌였다.

이번 봉사는 쓰레기 모임을 앞두고 있는 해변에서 정화활동을 펼치고,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낡은 등기구를 교체했으며, 사랑의 물품도 전달했다.

윤병창 한국전력공사 영광지사는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을 시행하고 있

며,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정이 많아 더 열심히 사랑의 봉사를 펼쳤다"고 말했다.

물품을 전달받은 어르신은 "배로 한 시간 반이나 걸리는 송이도까지 방문해 선물도 주고 바닷가 청소까지 해주 감사하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전력공사 사회봉사단 기금은 전 직원 매월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해 운영되고 있으며, 보훈대상자와 독거노인 등 어려운 이웃을 대상으로 매년 6회 정도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영광=이준용 기자 jylee@kwangju.co.kr

중국대사들의 남다른 해남사랑... '포스트 코로나' 교류협력 기대

전임 추귀홍 이어 싱하이밍 방문

진린장군 사당 '황조별묘' 등 인연

기업도시·관광단지 등 투자 관심

싱하이밍(邢海明) 주한중국대사가 전임인 추귀홍 대사에 이어 땅끝 해남을 방문, 중국대사들의 해남사랑이 눈길을 끌었다.

25일 해남군에 따르면 싱 대사는 지난 22-23일 1박2일 일정으로 해남을 찾아 해남쌀의 중국수출 기념식에 참석하고 주요 관광지 및 투자 대상지를 둘러봤다.

전임이자 최장수 중국대사로 이름을 올렸던 추귀홍(邱輝興) 중국대사로 지난 2015년 해남을 방문했다.

중국대사들의 잇따른 해남행은 해남과 중국의 남다른 인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해남 산이면에 위치한 황조별묘가 이유로 꼽힌다.

황조별묘는 정유재란(1597년 8월-1598년 12월) 당시 수군 도독으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군을 물리친 명나라 진린장군의 사당을 말한다. 명나라 멸망 후 진린의 후손들이 해남에 정착하면서 황조별묘는 한국과 중국의 오랜 인연과 우정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부각돼 왔다.

해남군은 진린장군의 고향인 중국 웡원현과 1999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문화와 함께 매년 명랑대접축제에 진린장군 후손 등을 초청해 교류하는 등 우호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도 지난해 중국 웡원현을 직접 방문, 단주제(澗州建) 현장대행과 양 군·현의 공동 발전과 민간 교류 확대방안 등의 내용을 담은



지난 22일 싱하이밍 중국대사가 해남군 산이면 진린장군의 사당인 황조별묘를 참배하고 있다.

MOU를 체결했다. 코로나 발생 이후 교류사업이 중단됐으나 올해도 해남군과 웡원현에서 서로 방역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싱 대사의 방문에는 이러한 해남군의 대중 협력교류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8월 해남쌀 수출 협의자 중국 대사관을 방문한 명 군수가 그 동안의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싱 대사의 해남 방문을 요청하자 큰 관심을 보인 대사가 두달여만에 해남 답방으로 화답한 것이다.

이례적으로 1박2일 일정으로 해남에 체류한 싱 대사는 황조별묘를 참배한 것은 물론 해남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며 해남의 전통문화와 기업투자 등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오시아노 관광단지를 직접 현

장 사찰하고, 투자유치 등 코로나 이후 한국과의 발전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싱 대사는 "중국은 올해 GDP 성장을 플러스를 달성한 유일한 국가이고, 한국 또한 효과적인 코로나 방역으로 경제대체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코로나 이후 계속해서 중국의 대외 수입 확대에 예상되는 만큼 해남을 포함한 한국에 큰 호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해남군은 2차례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무궁한 발전 가능성이 잠재된 해남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대중국 교류 협력의 교두보를 마련한 계기로 평가하고 있다.

명 군수는 "지난 400년의 좋은 인연을 다시한번 좋은 기회로 삼려 천년, 이천년을 반영할 국제 우호의 관계로 만들어가겠다"며 교류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지오옥션부동산 중개법인(주) 경,공매 컨설팅

"30년 경력의 조여사 010-6211-4585"

매매 물건

건 물 ▶ 광주 동구 금남로5가(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276평) 건물 : 1,477.64㎡(446.9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48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건 물 ▶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408평) 건물 : 1,350.03㎡(408.3평)
지하1층 지상4층 **매매가 : 61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의료시설 ▶ 광주 동구 대인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514.40㎡(155.6평) 건물 : 2,143.08㎡(648.2평)
지하1층 지상5층 **매매가 :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수익률 최상, 입지조건 최상 건물 다량 보유"

경매 물건

공장 ▶ 전라남도 화순군 동면 운농리
토지 : 8503.4㎡(2572.3평) 건물 : 4234.9㎡(1281.1평)
감정가 : 4,290,595,500원 **최저가 : 1,922,187,000원(45%) 유찰3회**

공장 ▶ 전라남도 여수시 울촌면 여동리
토지 : 5004.7㎡(1513.9평) 건물 : 3867.85㎡(1170평)
감정가 : 3,600,859,200원 **최저가 : 2,016,481,000원(56%) 유찰2회**

공장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죽정리
토지 : 5388.4㎡(1630평) 건물 : 4225.9㎡(1278.3평)
감정가 : 5,106,825,160원 **최저가 : 2,859,822,000원(56%) 유찰2회**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동 605
토지 : 2058.5㎡(622.7평) 건물 : 1592.8㎡(481.8평)
감정가 : 1,730,846,220원 **최저가 : 1,211,592,000원(70%) 유찰1회**

"광고 외 모든 경매물건 상담, 진행가능"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한방)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대표공인중개사 전 민 규 062-714-2251, 010-4234-8640